보도설명	보도일시	2026년 3월 11일(수) 배포시
	배포일시	2026년 3월 11일(수) 15:00
	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	담 당 자	박지연 KDI 홍보팀장 (044-550-4630, jypark03@kdi.re.kr)

KDI 원장 기자단 간담회 발언 보도기사 관련

<보도 내용>

□ 주요 언론들은 지난 3월 10일(화) 개최된 김세직 KDI 원장의 기자단 간담회 내용 중, 재정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다음과 같이 인용 보도하였습니다.

○ 김세직 원장, "건설 경기 부양이나 저금리,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'총수요부양책'으로서의 재정정책은 경계해야 하나,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할 수 있고, 특히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, 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'진통 완화' 목적의 재정 투입은 타당하다"

□ 하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**최근 정부의 "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재정정책"과 배치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제목**을 선정해 보도하였습니다.

<KDI 입장>

□ 김세직 KDI 원장의 발언 취지는 **'진짜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'에 필요한 재정의 원칙적 역할**을 언급한 것이며,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정정책과 전혀 배치되는 의견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원장이 경계한 것은 **과거 수십 년에 걸친 관행적인 방식**인 '건설 경기 부양'이나 '인위적인 수요 진작'을 통한 단기적 부양책입니다. 이는 **공급측면에서 결정되는 장기성장률 추락 저지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**는 학술적 제언입니다.

○ 무엇보다 원장은 **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적극 인정**하였습니다. 간담회 당시 대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**취약계층·소상공인에 대한 '진통완화' 목적의 재정 투입은 매우 타당**하다고 강조하였으며, 또한 **경제성장(진짜성장)을 위한 과감한 재정정책도 필요**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.

○ 이러한 발언은 '재정의 역할이 단순한 지표상의 부양이 아닌, 실질적인 민생 고통 분담과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집중되어야 한다'는 정책적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.

□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원장의 발언이 정부의 **특정 정책에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** 점과 **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 하락을 저지하고 추세 반전을 위한 구조개혁 제언**임을 감안하여 보도 및 제목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